

세 성인이 나는 동양사상의 정수

‘공자 노자 석가’ 모로하시 데쓰지 지음

그는 왜 이 책을 쓰려 했는지 100살에 이 책을 쓸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학문이 몇 명 학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렇지만 어렵고 복잡한 것을 쉽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그것기에 100년이란 세월을 기다린 것이다. 그렇게 평생 고된 ‘삼교도(三敎圖)’란 그림을 보고 삼성회담이란 기발한 구상을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보냈다.

이 책에서 세 성인은 생과 사, 중도와 중용, 인과 자비 등 9가지를 큰 주제로 격의 없는 토론을 벌인다. 글쓴이가 이 토론회를 기획한 것은 무엇보다 동양사상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 성인이 자신의 생애를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또한 서로간에 의견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질문함으로써, 유·불·선 삼교의 공통점과 다른점을 구별할 수 있는 변별의 힘도 갖게 도와준다.

日 석학 100세에 쓴 작품
시공초월 가상토론 통해
空·無·天 등 쉽게 설명

음식과 취미 그리고 신수 등 가벼운 주제에서 시작해 점차 심도를 높여나가는 서술방식이 흥미롭다. 이 책의 내용 전개는 질의 문답이지만 간혹 격렬한 논쟁도 펼친다. 이를테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노자님은 ‘도’를 만물의 근원으로 생각하면서 ‘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점은 내가 설명하는 공과 무’나 비슷합니다.’라고 말하자, 노자는 ‘얘기가 좀 이상하군요. 서로 그런 논의는 그만두기로 하죠. 원래 ‘공’이 아니라 ‘무’라는 것이 없는 것이라면 의논도 설명도 무이고 공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을 막는다. 이를 듣고 있던 공자는 ‘그렇다면, 노자께서는 ‘도’를 ‘무’라고 단언하지 않고 ‘현(玄)’이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을 쓰셨습니까.’라



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디 그렇게 말했습니까.’라고 노자가 되물자, ‘첫 장의 유명·무명이 그것이 아니요.’라고 공자가 맞받아 친다. 그제야 노자는 ‘현은 ‘현묘불가식(玄妙不可識)’으로 알아달라.’고 주문한다. 첨예한 이 토론은 ‘배 깊이 생각했군요. 본래 나도 그것은 공 또는 불이(不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요.’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재로 일단락 된다.

글쓴이는 이러한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공(空), 무(無), 천(天)이라는 삼교의 핵심 사상을 자세하게 풀어준다. 이는 더 나아가 중도(中道)와 중용(中庸), 인(仁)과 자비(慈悲) 등의 개념에까지 접근한다.

세 성인의 가상토론회를 지상 중계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글쓴이의 해박함과 읽는 재미가 보태져 동양사상의 진수를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특히 일본에서 18년 간 33쇄를 거듭한 스테디셀러란 접에서도 이 책의 가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값 9천원.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스테디셀러 다키읽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오랫동안 지구에 발을 디디며 살았던, 또는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 누구에게나 가장 고민스런 물음이다. 특히 운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을 중시하고 있는 불교의 시각에서 볼 때, 나에 대한 무지는 무의미한 삶의 늪이다.

인도의 영적 스승 라마나 마하르쉬의 <나는 누구인가>이 호준 옮김. 청하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이 책은 ‘자기탐구’를 깨달음에 이르는 최고의 길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라고 한다. 진정한 나(眞我)의 본질, 깨달음과 무지 등 자아탐구의 구체적인 이론과 실천법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징한 논리가 담겨 있다. 이 책의



자기내면 탐구
참나 알아내는
깨달음의 길 제시

들머리에서부터 강조하는 것은 ‘나의 소멸’이다. 마하르쉬는 말한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은 진정한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진아를 알면 풀리지 않는 문제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아를 아는 일이다.’

이처럼 진정한 나, 즉 진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으로 몰입해야 한다고 글쓴이는 강조한다. 이런 논리들은 모두 치열한 수행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읽는이의 내면 깊숙이 곧장 전달된다.

이 책이 지난 87년 초판 발행 이후 10여 배를 거듭할 정도로 많이 읽히는 이유는 독특한 전개방식이다. 사실, 우리의 경우 수행만 강조했지, 수행 과정에서의 의심이나 장애를 일으킬 때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없다. 이런 수행중도에서 이 책은,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준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제자(특자와 글쓴이)간의 질문과 대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은 점차 진정한 나의 실체로 다가가고 있음을 서서히 느끼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치열한 수행의 결과를 담은 이 책을 진아를 찾는 사람들에게 권해본다. 값 7천5백원.

김종근 기자

성공은 과정속에 있다

‘승려와 수수께끼’ 이은선 옮김



1999년 2월, 벤처 창업 컨설턴트인 코미사가 불교의 나라 미얀마의 광활한 황무지 위를 오토바이로 달리고 있다. 그는 그 여정에서 한 스님을 만난다. 코미사는 오토바이 뒤에 스님을 태우고 하루 종일 먼지 나는 길을 달려 사원에 도착한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한 스님은 난데없이 자신을 처음 만난 그 자리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다. 어찌구무 없이는 코미사에게 그 절의 주지스님은 화두 하나를 건넨다. “계단을 1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깨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이 화두의 해답은 무엇이고, 이 화두는 우리 인생이나 벤처와 무슨 관계가 있던 말인가. 그 해답은 바로 한 뜻내기 창업컨설턴트의 창업기를 통해 하나씩 밝혀진다.

21세기형 벤처 자본주의와 창선의 화두를 섞어놓은 <승려와 수수께끼> 이은선 옮김, 바다는 직업과 사업에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묻는 인생 교훈서다.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매력은 단지 실리론 벨리와 벤처 기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 컨설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쓴이 랜디 코미사가 자신의 인생과 실리론 벨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가’, ‘여행으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과 가치관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다.

그는 사업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 즉 일 그 자체라고 강조한다. 값 7천8백원. 김종근 기자

길연 지음

‘푸하하 붓다’



“나에게 작은 믿을 하나가 있다. ‘웃음 속에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는 믿음이다. 화회말의 그 초탈한 듯한 웃음도, 중국요리집마다 걸려 있는 배불뚝이 성자 포대화상의 호랑이 웃음도, 모두 다 깨달음 자의 웃음이다.”

명사가 길연(44) 씨의 말 속에는 수행의 향기가 배어있다. 길 씨는 명사가이지만 두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구석구석에서 작은 것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는 현실주의자에 가깝다. 이러한 그의 삶은 신간 <푸하하 붓다> (미토시)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제목이 주는 느낌만큼이나 가볍게 읽힌다.

인도에 대한 정보와 재미로 버무린 이 책은,

글쓴이가 지난 10년 간 인도·티베트·네팔 등지를 여행하며 겪었던 해프닝들을 생생한 현장의 소리로 전한다.

80년대 이후 인도 관련 책들은 여러 권 나왔지만 주종은 여행안내서다. 이 책도 그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인도 여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웃기는 사레들만을 담았다는 점이 다르다.

택사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요금 외에 300루피를 더 지불한 바가지 사건, 한국에서 온 소포에서 알 수 없는 종류의 폭발이 일어났으며 끝까지 열여보는 김치소동 등 61개를 소재로 한 짤막한 글들은 읽는 이들의 웃음을 볼수록 자극한다. 값 7천5백원. 김종근 기자

인도 여행중 깨달은 참된 웃음

가려뽑은 신라시대 밀교 수행법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신라 백제·고구려 세 나라의 사적과 신화 그리고 전설, 시가 등을 담은 <삼국유사>에 대해 말을 덧붙이는 것은 쓸데없는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신간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신라 밀교> (하남)은 오랫동안 불가(공유가) 밀교를 수행하고 현재 밀교 연구를 하고 있는 영우 스님이 <삼국유사> 속의 밀

교를 되살려 내는데 초점을 맞춘 책이다.

영우 스님은 <삼국유사> 나오는 대부분 스님들이 밀교 수행자였다는 사실에 착안, 신라 밀교의 자취와 수행법 등에 대해 천착한다. 유가불교에 정통한 대현 스님이 <금광명경>에 대해 실한 내용의 ‘현유가(賢瑜伽)’, 밀본 스님이 선덕여왕의 병을 치유했다는 ‘밀본 최사(密本崔師)’ 등 <삼국유사> 4·5



권을 등장하는 밀교 수행자들이 탐구의 기동이다. 이 책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학술적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론에도 비중을 둔다. 그것은 바로 오부심관(五部心觀) 수행법이다. 값 1만2천원. 김종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서 10

책방 역사이론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재	디자인하우스
2	절을 가져다 잘하는 법	정권	붓다의마을
3	선방일기	지허	아시아문
4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호	이레
5	참회 참회기도법	김현준	효림
6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화	법공양
7	산사에서 부처는 편지	명정	좋은날
8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	일지	민족사
9	깨달음 뒤의 깨달음	소갈린포체	민음사
10	단박에 운회를 끊는 가르침	김지수	불광

도서 안내: (02)737-0695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월간 『법공상』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도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집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扉를 열어 보십시오. 기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합니다.



4x6판 / 값 3,500원

- I 업장과 참회
-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 III 절을 통한 참회
- IV 참회염불
-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 VI 이참회법과 매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르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르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르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득승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